

## 어렵지 않게 회화 배우기

### 전광희 학우 (14학번) 인터뷰

글로벌경영학트랙은 2013년 가천대학교의 특성화학과로 출범한 이래 탁월한 실력과 글로벌 마인드, 윤리적 세계시민 의식을 갖춘 실천하는 경영인재를 길러냄으로서 세계를 향한 경영학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전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추어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수업, 토론과 사고력을 증진하는 수업,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업 등 강의와 교육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Honors 장학생 제도, 교환학생 글로벌 교류, 실리콘밸리 체험, IPP 현장실습, 동아리와 비교과 활동 등 재학 기간 동안 다양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더욱 알차고 즐겁게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런 특성화학과인 글로벌경영학트랙 학우들에게 보다 좋거나 혹은 효율적인 영어 공부법이 있을까 해서 14학번 전광희 학우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Q :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A : 가천대학교 글로벌경영학트랙 14학번 휴학생 전광희입니다.



▲전광희 학우 (14학번)

Q : 한국 정부에서 하는 west프로그램에 참여해 인턴 중 이라고 들었는데, west프로그램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A : WEST 프로그램은 Work, English Study, Travel in US 라는 정부 프로그램으로써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8개

월까지 소득분위에 따른 정부 지원으로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글로벌경영학트랙 학생으로서 비즈니스의 중심지인 미국에서의 인턴은 둘도 없는 기회이자 경험입니다. 또한 정부 지원금까지 받게 되니, 꿩 먹고 알 먹고! 선발 과정은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서류심사와 두 번의 인터뷰를 거친 선발, 만약에 지원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Facebook - Danny Chun)

Q : 그리고 해외에 나가기 어려운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이 영어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궁금한 점은 회화가 토익의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 지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종종 보입니다.

A : 해외 나가는 프로그램이나 어학연수는 토플이나 토익점수가 대부분 필수입니다. 영어점수가 우선이지만 토익이나 토플공부를 통해서 큰 영어실력의 향상을 바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토익과 토플공부는 많은 학원들이나 책은 답을 도출하는 법을 알려주지, 평소에 사용하는 영어 실력을 향상시켜주지 않는다고 봅니다. 토익토플공부는 영어를 본격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 토익과 토플 점수를 통해 해외로 나가고 현지에서 본인이 직접 체험해봐야 영어실력은 급속도로 성장합니다.

Q : 마지막으로 전광희 선배의 공부법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조금 가르쳐주세요.

A : 토익토플은 솔직히 저보다 다른분들께서 더 잘 알려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제 주위에서 실제로 영어 점수가 아닌 영어 실력을 늘린 사람들의 얘기를 토대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효과적인 것 같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좋아하는 '만화영화' 한편을 고르세요.

2단계) 처음 볼 때는 한글 자막으로만 보시고

3단계) 2,3,4번째는 한글&영어 자막으로 정주행하세요.

2,3,4번째 볼 때는 각각 영어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하나 다 공부해야 합니다.

4단계) 5번째부터 영어자막으로만 보고, 볼 때는 영어로 얘기하는 것을 다 알아듣고 하나도 모르는 단어가 없어야 합니다.

5단계) 이후에는 2번 정도 정주행하면서 대사를 따라해 보세요. 발음 중요합니다, 잘 따라해 보세요.

6단계) 영어자막 없이 몇 번이고 돌려보면서 따라해 보세요.

\*각 단계마다 몇 번을 돌려보든 상관없지만 각 단계마다의 목표는 달성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마칠 때는 이 장면에서 어떤 대사가 나온다는 것을 알 정도로 꿰고 있어야 하고, 이 모든 과정은 열심히 하면 2주안에, 여유롭게 진행된다면 한 달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치면 영화에 나오는 표현들과 단어들은 본인의 것으로 만들고 자유자재로 쓸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발음은 물론이고 다른 영어를 들을 때도 머리에 더 빨리, 더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까지 14학번 전광희 학우의 인터뷰다. 바쁜 인턴생활 와중에도 우리학교 학생들을 위해 시간을 내어준 전광희 학우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김동석 편집장  
r\_esun\_z@naver.com

# B&B 특강 - Wei na Lee 교수 특강

Wei Na Lee 교수와 함께하는 마케팅 강연



5월 18일 가천대학교 가천관 B101호에서는 오후 5시 부터 6시 30분 까지 B&B 특강이 진행되었다. 글로벌경영학 트랙 내에서 진행되는 특강으로서 이번으로 10번째를 맞이했다. 100명 이상의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에 가천대학교 글로벌경영학트랙 교수들과 학우들로 가득 찼다. 심지어 뒤쪽에서는 자리가 없어 서서 강의를 듣는 학우들의 모습도 종종 찾아 볼 수 있었다. 이번 특강에 초청되어 강의하게 된 강사는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의 Wei Na Lee 교수였다. Wei Na Lee 교수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유명한 석학으로 알려져 있다. 이 초청 교수는 글로벌경영학트랙의 유진영 교수의 은사님이라고 전해진다.

Wei Na Lee교수는 미디어 환경 변화와 글로벌 소비자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으며 주된 이야기는 뉴미디어

에 관한 내용이었다. 교수는 뉴미디어 시대에 이르면서 수동적인 의사소통 보다 능동적인 의사소통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상호 간의 의사소통이 중요한 아프리카 TV와 같은 매체가 성행하고 있는 현 상황 속 뉴미디어 시대에 맞는 능동적인 태도로의 변화를 역설했다. 또한 교수는 ppl에 대한 변화에도 강조하였다. 요즘 현대인들은 TV 보다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시간이 더 많은데 이러한 변화에 따라 ppl 광고도 스마트폰에 더 많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Wei Na Lee 교수의 강의는 모두 영어로 진행되었다. 또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영어로 구성되어 있었다. 글로벌경영학트랙 학우들은 영어 실력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다. 역시나 강의를 듣는 내내 대부분의 학생들은 열정 가득한 표정으로 교수의 강의에 귀를 기울였다. 사실상 대학생들 상대로 한 강의가 영어로 진행된다면 불멘소리가

나오기 십상이다. 하지만 이번 강의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잠에서 깨어있었고 필기를 하며 강연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있었다.

강의가 끝난 후 질문시간에는 교수와 학생들이 영어로 대화를 나누었다. 학생들이 몰랐던 내용, 더 알고 싶었던 내용을 교수와 이야기하면서 궁금증을 해소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

최백연  
(zzangcby@naver.com)

# 경영대학 체육대회

경영대학 내 세 개의 과가 모여 체육대회를 열다.

5월 20일 토요일에 경영대학 학생회 CODE에서 주최하는 체육대회가 가천대학교 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되었다. 글로벌 경영학 트랙, 경영학트랙, 금융수학과 총 3개의 학과가 모여 다 같이 운동을 하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행사였다. 총 참가자들을 4개의 팀으로 구분하고 CODE의 운영진들은 여러 가지 게임을 진행했다. 가장 첫 번째 순서로 축구 예선전이 진행되었다. 다운팀과 정선팀이 첫 번째 예선전을 치루고 그 다음으로 영희팀과 선무팀이 치루었다. 첫 번째 경기는 다운팀의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승리를 가져갔다. 두 번째 경기는 초반에 선무팀이 경기를 이끌어 가고 있었으나 영희팀의 역전으로 영희팀이 승리하게 되었다. 두 번째 순서로 피구 경기가 있었다. 대장전 게임으로 여 학우들이 남 학우 한명을 지키는 룰의 게임이다. 정선팀과 선무팀에 응원하는 학우들 모두 감탄할 정도의 에이스가 있었는데 이들의 활약으로 승리를 거머쥐었다. 다음 순서로 농구 예선전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 농구 경기는 다운팀과 선무팀이 두 번째 경기는 영희팀과 정선팀이 치렀다. 농구는 의외의 변수가

많았다. 한 명의 실력자가 팀의 승리를 이끌 수 있었던 축구와 다르게 5명의 팀워크가 게임의 승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치열한 경쟁 속에 다운팀과 정선팀이 승리하였다. 네 번째로 단체 줄넘기를 했다. 단체줄넘기 1등은 다운팀, 2등은 영희팀, 3등은 정선팀, 4등은 선무팀이 가져갔다.

네 가지 경기를 끝낸 경영대학 학생들은 CODE에서 준비한 햄버거를 먹고 다음 순서를 준비했다. 닭싸움, 미션릴레이, 병고인신 게임이었다. 병고인신 게임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자면 병아리, 고릴라, 인간, 신 네 가지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게임이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병아리에서 고릴라, 고릴라에서 인간 순으로 신까지 가서 탈출하는 게임이다. 이 3가지 게임들은 학우 모두가 참여하는 게임들이었기 때문에 참여도가 굉장히 좋았다.

이 게임들을 끝마치고 축구, 농구 결승전과 하이라이트 경기가 있었다. 축구에서는 다운팀과 영희팀이 결승전을 치르고, 농구에서는 선무팀과 정선팀이 결승전을 치렀다. 축구 우승은 다운팀이 가져갔다. 글로벌경영학트랙의 16학번 박용민 선수가 우승에 한 몫을 했다. 농구 우승은 정선팀이 가져갔는데 5명 선수들 모두 좋은 기초체력과 운동신경

을 뺏내며 당연하다는 듯 1등을 쟁취했다. 마지막 순서로 체육대회의 꽃이라 불리는 계주가 있었고 역시 가장 인기가 많고 호응이 좋았다. 계주는 초반부터 1,2 위 다툼이 치열했다. 영화팀의 마지막 주자가 2등보다 많이 앞서있었다. 그러나 다운팀의 마지막 주자 글로벌경영학 트랙의16학번 박용민 주자가 영화팀 주자를 앞지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김기현 기자

# 배운 것을 뽐내보자, 글로벌경영학트랙 학술제

2017년 5월 25일 글로벌경영학트랙의 첫 번째 학술제가 개최되었다. ‘4차 산업혁명과 경영의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학생들에게 학교생활을 하며 공부한 것들을 발표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번 학술제는 재무관리, 마케팅, 인사조직, 전략·국제, 창업·Tech 5가지의 분야에 각 3팀씩 발표가 이루어졌다.

12시 30분 조성준 학과장의 개회사를 필두로 준비위원장 최윤정 학우가 개회식을 진행하였으며, 최도성 교수의 ‘새로운 기계시대의 도래와 기업경영’ 주제의 기초 강연이 진행되었다. 또한 한 시간 가량 교수들의 특강도 이어졌다. 전성주 교수는 재무관리 분야에서 ‘데이터 마이닝과 주식수익률 예측’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고, 마케팅 분야에선 김희진 교수의 ‘Money priming-돈에 대한 생각이 소비자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 인사조직 분야에서는 권병욱 교수의 ‘면접의 기술’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였다. 또, 전략·국제 분야에서는 한주희 교수의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새로운 현실’, 창업/Tech 분야에서는 전성민 교수의 ‘게임 산업의

기회와 위협-신기술의 총아인가 규제 대상인가’라는 주제로 특강이 이어졌다.

5개의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준비한 내용을 발표하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발표자 학생들의 열기가 교수들 못지않았던 만큼 이 날 만큼은 학생들이 교수가 된 듯 자신들이 배운 분야에 대해 날개를 펼쳤다. 글로벌경영학트랙인만큼 외국인 학생들도 참여를 해 좋은 반응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몇 한국인 재학생들도 영어로 발표를 하였는데 결과에서 수없는 준비와 연습량을 알아 볼 수 있었다. 또한 제 1회 학술제인 만큼 많은 학우들이 참관하였는데 이 모습 또한 인상 깊었고, 학우들은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자리였다고 한다.



▲최도성 교수의 특강



치열한 경쟁 끝에 재무관리 분야의 전다운, 마케팅 분야의 최민석, 인사조직 분야의 이은영, 전략·국제 분야의 Nicholas, 창업/Tech 분야의 양승우, 조현명 학우가 명예의 1등을 차지했다.

2017년에 처음으로 개최한 학술제 임에도 불구하고 학우들이 열정적으로 임해주어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올해에 그치지 않고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해서 진행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수빈 기자  
dltnqls442@naver.com